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선고 관련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시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참석 의원들이 1일 서울 중로구 총리공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석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상법개정안 거부권 행사 규탄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시스

여야,尹 선고일 지정에 “만시지탄이나 다행”... ‘인용 vs 기각’ 막판 여론전 강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오는 4일로 결정되면서 정치권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여야는 1일 각각 만장일치 인용과 기각·각하를 자신했으며 막판 여론 총력전에 나섰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AI허브에서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승복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여당은) 승복 필요성에 대해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는데 야당은 아직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유혈 사태 운운하면서 협박할 일 아니라 어떤 결론이 나오든 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야당이 반헌법적인 여러 법률을 준비하고 마찬가지로 반헌법적인 탄핵소추를 준비한다고 해서 많이 걱정했

권영세 “당연히 기각 희망” 권성동 “판결에 승복할 것” 박찬대 “만장일치 인용 확신” 김용민 “윤 파면이 국민 명령”

다”며 “현재가 이제라도 기일을 잡아서 헌법적 불안정 상태를 해소할 수 있게 돼 굉장히 다행”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 한분 한분이 국익을 고려하고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주에 선고기일이 잡힌 것이 탄핵 기각에 유리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당연히 기각을 희망하지만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현재의 선고기일 발표 직후 브리핑을 열고 “현재는 특정 결론을 유도하고 강요하는 민주당의 공세에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힘은 현재 판결에 승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가 어떤 판결을 내리더라도 사회적 갈등이 거세질 것으로 생각한

판 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위헌 상태에서 선고를 맞이하게 돼 유감”이라면서도 “국민 명령에 따라서 4월 4일 선고하게 된 것을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덟 분의 헌법재판관을 내란수와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민주주의와 민생 위기, 안보와 평화 위기를 반드시 해소해 줄 것을 국민과 함께 기대하고 명령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위헌 상황을 해소하지 못하고 끝까지 돌리키지 않았던 한석수, 최상목의 책임은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만장일치 (인용 결정을) 확신한다”며 “8명 헌법재판관 상황 자체가 헌법을 위배한 상황 속에서 발생했던 부분이라 이것을 면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방법은 파면이라

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내란 수괴 윤석열이 직무에 복귀하는 일은 하늘이 두쪽 나도 없다”며 “윤석열이 복귀하지 않는 것이 국민 명령이고 시대 정신이고 그것이 바로 정의고 생명을 살리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현재가 선고기일을 지정해 응답했지만 국민이 진짜 원하는 것은 윤 파면”이라며 “현재는 파면 선고 이외에는 다른 선택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각인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그간 내란 세력이 준동하며 헌법재판관 결정이 늦어져 상당히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4월4일 당연히 윤석열 파면 결정이 날 거라고 본다”며 “윤석열 파면에 민주당이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예초 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며 한석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쌍탄핵’을 추진했지만 이날 현재의 선고기일 지정으로 탄핵 카드는 일단 내려놓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소추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의원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에게 4일 오전 11시 선고한다고 통지했다. 현재는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11일, 최종변론이 마무리 된 지난 2월 25일부터 38일 만이다. /뉴스시스

민주, 검찰 ‘文 소환 통보’에 “정치탄압” 반발... 전주지검 항의방문도

문재인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은 1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소환 조사를 통보한 데 대해 “무도한 정치탄압”이라며 반발했다.

이들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검찰의 공작수사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 2월 문 전 대통령에게 전 사위 타이이스타트 임원 채용 의혹과 관련한 뇌물수수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통보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변호인 측에서 서면 질의를 보내는 등 조사 시기를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문재인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은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어서 전직 대통령을 망신주고 12·3 내란에 대한 국민과 역사의 심판에 몰타기를 하려는 정치행위”라며 “정치검찰의 공작수사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전 정권과 야당에 대한 정치검찰의 악행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월성원전 감사방해로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들은 전원 무죄가 확정됐고,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도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며 김경수 여사의 인도 방문과 의상 관련 의혹도 무혐의 불기소로 결론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반성과 사과는 고사하고 정치검찰은 자신의 악행을 덮기 위한 마구잡이식 수사와 기소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다”며 “검찰은 자신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검찰개혁에 저항하며 이를 추진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보복을 했다. 전직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었다”고 했다.

문재인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 공동성명 발표 “김정숙 의혹도 무혐의 불기소로 결론... 마구잡이식 수사” 전정권탄압대책위 전주지검 방문... “무리한 수사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검방문 항의방문 해문재인 전 대통령의 정치탄압 수사중단을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시스

그러면서 “이제는 정치검찰 악행의 흑역사를 끝내야 한다. 문 전 대통령과 함께 일했던 청와대 참모 일동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공작수사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며 완전한 검찰개혁을 이루기 위한 길에 함께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성명에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실장·안보실장·정책실장·경호처장·수석비서관·대변인 출신 46명이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 “전 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도 이날 오전 전북 전주지검을 항의 방문하며 “정치 탄압” 공세를 이어갔다. 대책위는 “내란수괴 윤석열은 ‘항소 포기’로 풀어주고 ‘디올백 수수’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조사조차 안 한 검찰이 전 정권에는 망나니 칼춤을 추고 있다”며 “권력의 시너가 돼 정치 탄압에 앞장선 정치검찰의 끝은 결국 파멸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 정권에 대한 무리한 수사를 당장 중단하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및 디올백 수수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당장 시작하라”,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의 채용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부터 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항의 방문에는 김영진 대책위원장장을 비롯해 김영배·김한구·권현영·박수현·손금주·이용선·이원택 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뉴스시스

제48회 보성 다향 대추축제

2025. 5. 2. (금) ~ 5. 6. (화)

한국차문화공원 및 보성을 일원

보성 차(茶)를 활용한 공식행사, 특별행사, 기획행사, 차문화체험, 전시/경연, 공연 등

제48회 보성군민의 날
5.2. (금) 보성공설운동장
군민 화합 피로연, 축하공연 등

제3회 남도전국합창경연 페스티벌
5.2. (금) ~ 5.3. (토)
별교체동신음악당

제20회 보성녹차마라톤대회
5.3. (토) 8:00 ~ 16:00
보성공설운동장
총, 하프, 10km, 5km

제21회 일림산철쭉문화행사
5.3. (토) ~ 5.5. (월)
웅치면 용반리 일림산

제27회 사편제보성소리축제
5.4. (일) ~ 5.6. (화)
보성군문화예술회관
전국 민소리, 교수 경연대회, 주모제

제103회 어린이날 행사
5.5. (월) 한국차문화공원
악기, 체험단, 놀이마당 등

제3회 보성데일리콘서트
5.3. (토) ~ 5.5. (월)
보성농협하나로마트 주차장

● 주최 / 주관 보성차생산자 조합 | 보성다향대추제추진위원회 ※ 축제 일정 및 행사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 농림축산식품부 | 전라남도 | 보성군 | 한국관광공사 | 한국관광협회